

결정적 '한방' 없는 도정질문

의회, 18일까지 사흘동안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과 환경분담금 등 중복 질문 UAM·청년 정책은 설전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민선8기 제주도정을 상대로 올해 첫 도정질문을 벌였으나 새로운 현안 발굴 없이 '팽탕'으로 마무리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제426회 임시회를 열고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간 오영훈 제주지사를 상대로 도정질문을 벌였다. 도정질문 기간 의원들은 지역에서 민감한 현안에 대한 질의를 준비하고 오 지사의 입장과 대안, 방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성과를 거뒀지만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환경보전분담금 등 중복 질문도 이어지며 시간을 허비하기도 했다.

특히 이번 도정질문 과정에서 오영훈 지사가 도의원과 설전을 벌인 사안은 강상수 의원(국민의힘, 서

귀포시 정방·중앙·천지·서홍동)의 한라산케이블카 도입과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1·이도1·건입동)의 청년정책 관련 등 크게 두 가지다.

강 의원은 도정질문 첫날인 16일 제주도정이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심항공교통(UAM) 사업에 대해 한라산 케이블카 도입을 병행하자고 제안했고, 오 지사는 이미 지난 도정질문 당시 답변했던 질문이라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UAM 관련 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는데, 오히려 관련 업계에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재차 피력했다.

오 지사는 도정질문 마지막날인 18일에는 한권 의원과 제주 청년정책과 예산 신속집행 등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이날 한 의원이 제주 청년정책과 관련해 청년들이 제안한 정책들이 반영되는 정도가 낮다는 취지로 문제점을 지적하자, 이에 오 지사는 전임 도정보다 못하다고 평가한다는 게 답답이 가

질 않고 당혹스럽다며 얼굴을 붉혔다. 또 이날 제주도에는 한 의원의 청년정책 지적과 관련해 곧바로 설명자료를 내고 일일히 반박에 나서기도 했다.

또 이날 한 의원이 올해 예산과 관련해 제주도가 신속 집행했지만, 제주 출자출연 기관에 예산이 묶여 있다고 지적하자, 오 지사는 상반기 4-5월 정도에 대부분 집행되는 사업으로 3월 기준에서 집행을 개설했지 않았다는 주장은 출자출연 기관의 성격, 지출과 관련된 일련의 절차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기싸움을 벌였다.

이번 도정질문을 통해 자신의 입지에 유의미한 성과를 거둔 의원들도 눈에 띈다.

하성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안덕면)은 도내 읍면지역의 미분양 주택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했고, 오 지사로부터 행정 규제 등 별도의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답변을 받아내는 등 제도 개선 가능성을 확인했다. >>2면으로 계속

이태윤기자 ty9456@ihalla.com



휴식 중인 백로들 18일 번식지로 이동중인 백로들이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서민 울리는 전세사기... 도내 54명·38억 피해 인정

특별법 시행 후 10개월간 국토부에 80명·72억 접수 30대·오피스텔 피해 집중

제주지역 전세사기 피해자와 피해액이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1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지역에서 국토교통부에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서를 접수한 인원 및 피해액은 80명·72억2500만원이다. 이 가운데 국토부의 심의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인정받은 인원은 54명이며, 이들이 입은 피해액은 38억원(1인당 4750만원)이다.

도는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올해 4월 15일 까지 약 10개월간 지역·연령대별 피해 신청현황을 집계했다.

그 결과, 현재까지 전세사기 피해신청자 80명 중 54명(67.5%)이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14명(17.5%, 18억6500만원)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불인정됐고, 나머지 12

명(15.0%, 취하 1명 포함)은 피해 사실을 조사 중이거나 조사 완료 후 국토부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지역별로는 제주시 68명(85%), 서귀포시 지역에서 12명(15%)의 피해 신청이 접수됐다. 연령대별로 30대가 24명(30%)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21명(26%), 40대 14명(18%), 60대 이상 14명(18%) 순이다.

주택유형별로 오피스텔이 47건(59%)으로 가장 많고 다세대 12건(15%), 단독·다가구주택 11건(13%), 아파트 4건(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실제 A오피스텔에서 피해자 35명이 발생했고, 이들의 총 피해액은 17억1500만원(1인당 4900만원) 규모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공매 유예·정지 및 대행 서비스, 우선매수권 부여, 주거 지원, 법률(소송) 지원, 금융·세제 지원 등 특별법에서 정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제주도

누리집(www.jeju.go.kr)을 통해 확인하거나, 제주도 주택토지과(710-2693, 2695)로 문의하면 된다.

정부는 지난 2월 1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편의 향상을 위해 전세 피해지원센터(1533-8119)와 경·공매지원센터(1588-1663)를 통해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긴급 지원하는 등 피해 예방과 신속한 피해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피해 입차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자 인정 요건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등기)를 갖춘 경우 ▷입대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2억원 상한 범위 내 조정 가능)인 경우 ▷다수의 임차인에게 변제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또는 피해예상)한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채무 미이행 의도가 있는 경우다.

백영탁기자 haru@ihalla.com

도민 화합 한마당... 제58회 도민체전 오늘 개막

21일까지 강창학경기장서 51개 종목서 선수들 겨뤘

스포츠를 통한 도민 화합의 축제인 제58회 제주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가 19일 서귀포 강창학종합경기장에서 막을 올린다. 오는 21일까지 도내 79개 경기장에서 사흘간 펼쳐지는 올해 대회에는 승마 테니스 합기도 종목이 추가돼 51개 종목 1만64000여 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한다. >> 관련기사 10면

경기를 치렀고 개회식 당일 15개 종목을 시작으로 3일간 12세 이하부와 15세 이하부, 일반부(읍면동, 동호인), 장애인부, 재외도민부 등으로 나뉜 939개 팀이 출전, 지역의 명예를 걸고 실력을 겨룬다.

이날 오후 강창학종합경기장에서 열리는 개회식은 대형 미디어파사드 무대를 배경으로 제주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표현하는 내용으로 꾸며진다.

특히 공식 행사에서는 드론 1000대가 제주의 미래를 형상화한 로켓그린수소 UAM 등의 10가지 첨단

드론라이팅쇼를 펼치며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한다.

18일 성산읍 혼인지에서 채화된 성화는 이날 개회식에서 점화기술을 동원한 리프트 형식으로 점화된 후 대회기간을 밝히게 된다.

제주자치도체육회는 18일 오후 모의 개회식을 열고 대회 개최를 최종 점검했다.

서귀포시는 이날 개회식에 선수단과 도민 등 최대 9000여 명이 몰릴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 만큼 대중교통을 이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위영석기자 yswit968@ihalla.com

화북 주상복합용지 8번째 입찰, 이번엔 팔릴까...3면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빛나는 제주의 도약

2025 APEC 정상회의

“ 제주는 오늘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전진합니다. 제주의 담대한 여정에 도민 여러분도 함께해 주세요! ”

2024년 4월 19일 (금) APEC 정상회의 유치신청서 외교부 제출
5~6월 현지 실사 및 PT / 상반기 중 개최도시 선정